



## K-리그 내일부터 후반기 레이스

K-리그가 8일 주중 라운드부터 끄거운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한다. 전·후기 구분없이 전반기 성적 이 그대로 이어지는 후반기 리그의 관심사는 6강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중하위권 팀들의 치열한 승점 쟁탈이 예상된다.

## 전남 공·수 전력 보강…6강 PO행 자신 광주 13위 부산과 3점차…탈꼴찌 주력

▲광주·전남 6강 플레이 오프 가능성은 =전반기를 6위로 마친 전남(승점19)과

12위 대구(13점)의 승점 차는 불과 6점.

6~12위 팀은 한 경기만 져도 순위가 두 세 계단씩 오르내릴 수 있어 매 경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선두 성남이 13경기 무패행진(9승4무·승점31)으로 독주한 상황에서 2위 수원(승점25)과 6위 전남의 승점 차이도 6점밖에 되지 않아 상위권 팀이라도 연재에 빠지면 언제든지 중하위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에따라 전남은 최근 브라질 출신 용병 공격수 시몬과 미드필더 윤주일과 수비수 과테휘 등을 영입, 전력을 보강했다.

후반기 돌풍을 자신하는 이유다. 다만 김진규를 FC서울에 내준 게 아쉽다.

반면 광주의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비관적이다. 우선 풀찌를 탈출하는 게 급선

무다.

전반기를 1승4무8패(승점 7점), 14위로 마감한 광주는 13위 부산에게 승점 3점이 뒤져있고 골득실차도 7점이나 부족하다. 광주는 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는 부산전 승리를 통해 끌찌 탈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이 있다.

▲후반기 리그 일정 어떻게 되나=8일 후반기 첫 삽을 뜨는 K-리그 14개 팀은 10월10일까지 팀별로 13경기를 더 치르고 정규리그 1위는 챔피언결정전에 곧장 진출한다.

4위~5위, 3위~6위 팀이 6강 플레이오프를 하고, 승자는 10월28일로 잡힌 준플레이오프를 얻는다.

준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팀은 10월31일 정규리그 2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한다음, 여기서 이긴 팀이 정규리그 1위 팀과 11월25일과 12월2일에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챔피언결정전에서 대망의 우승컵을 다룬다.

▲성남 독주는 언제까지=성남은 전반기 무패행진 속에 24골을 몰아쳐 경기당 평균 1.85점의 폭발적인 활력을 뿐였다.

실점도 13경기, 6골(평균 0.46점)로 막았다. 성남 골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본 구단은 고작 여섯 팀.

모때(7골), 김두현(5골), 김동현(3골)

이 전방을 오가며 불을 뿜고 후방에는 손대호-김상식의 '더블 불란테'를 중심으로 K-리그 최고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포백(4-back)이 뒷문을 굳건히 사수해 정규리그 최다골-최저실점의 균형미를 자랑하고 있다.

성남은 8일 새로운 삼바 공격수들로 무장한 9위 제주 유나이티드(승점14)를 상대로 정규리그 14경기 무패행진에 도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일 밤 영국 런던 뉴월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FA 커뮤니티실드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 첼시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볼을 다투고 있다. FA 커뮤니티실드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직전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간에 벌이는 경기이며 맨유는 이 경기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승리해 통산 16 번째 FA 커뮤니티실드를 들어올렸다.

/로이터=연합뉴스

## 유럽 프로축구 리그 개막

## 샤라포바 대회 2연패

스위스 슈니더 2-1 제압

WTA 애쿠라클래스 단식

## 홍명보 코치 “감독 기회 온다면 피하고 싶지 않다”

### 올림픽 축구대표팀 코치로 합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38)가 ‘박성화호’로 새롭게 출범하는 올림픽축구대표팀 코치로 합류했다.

홍명보 코치는 6일 축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림픽대표팀 코치를 맡기로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박성화 감독을 만나 구체적으로 팀 운영 방안과 코치 역할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9월 독일월드컵 대표팀 코치를 맡은 이후 아드보카트호와 베어벤훈에서 계속 대표팀 코치로 일했던 홍명보는 이로써 국내 지도자 체제에서도 태극호에 남게 됐다.

홍명보는 지난 3일 올림픽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박성화 감독과 5일 밤 통화에서 코치자 수락 의사를 전했다.

홍명보는 올림픽대표팀 감독직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데 대해 “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부담도 있었지만 극복해야 한다고 봤다. 아무튼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올림픽 본선 티켓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베어백 감독과 함께 끌려나겠다고 말해왔지만 지금 올림픽대표팀의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명보는 “베어백 감독의 사퇴는 아쉽다. 모든 것이 너무 이르지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왼쪽)과 홍명보 코치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은 독이 든 성배가 맞는 것 같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내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처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성화 감독은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코치를 만나 약속한 뒤 “홍 코치가 지난 며칠 심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올림픽대표팀에서 홍 코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 반갑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프리미어리그는 11일부터

2007~2008년 시즌 유럽 프로축구 리그가 프랑스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지난 달 퍼스컵축구에서 ‘2전3기’ 끝에 우승한 프랑스 챔피언 올랭피크 리옹은 6일 오전 (이하 한국시간) 스타드 제를랑에서 열린 2007~2008 투상파오나 개막전에서 채코 대표 출신 밀란 바로시의 선제골과 카림 벤제마의 추가골로 옥세르를 2-0으로 완파하고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리옹은 이번 여름 새 전력으로 보강한 카데르 케이타, 프랑스 대표 출신 시드니 고부까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줘 기록적인 리그 7연패 전망을 밝게 했다.

반면 지난 시즌 준우승팀 마르세유는 스트라스부르와 득점없이 비겨 출발부터 주춤했다.

지난 주말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함께 체코, 벨기에, 오스트리아 리그가 개막했다.

11일에는 최고의 별들이 모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가 막을 올린다.

이어오는 26일 이탈리아 세리에A가 시작되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유럽 빅 리그 중 가장 늦게 다음 달 초부터 킥오프한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AC 밀란(이탈리아)은 로코 모티프 모스크바(러시아)와 주말 평가전에 서 3-3으로 비겼다. 카카와 클라렌스 시도르프가 골맛을 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3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경북·성남서고)(13 : 00·KBSN Sports)

▲남해상주 비치발리볼(16 : 0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한신>(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SK-LG>(18 : 00·KBSN Sports), <한화-KIA>(18 : 30·MBC ESPN)

##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대지72평, 연면적 20평인 3층 코너길이 3의 8천만원이다.

보증금 500만원, 월280만원이 나온다.

임대수익률로 10%이다.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2위·러시아)가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샤라포바는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인 샌디에이고 칼스바드 라 코스타 리조트 코트에서 끝난 총상금 134만달러를 걸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애쿠라 클래식 단식 결승에서 스위스의 패티 슈니더(17위)를 2-1로 따돌리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올해 첫 우승자인 샤라포바는 지난해 10월 WTA 투어 오스트리아 린츠 대회 이후 10개월 만의 짜릿한 우승이다.

지난해 US오픈에서 생애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샤라포바는 그러나 올해 첫 메이저대회였던 호주오픈에서 준우승에 그치며 주춤했는데 이어 프랑스오픈에서는 4강 진출에 만족했다.

최고 권위의 월드컵에서는 금기야 오른쪽 어깨 통증이 도지면서 4회전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하드코트에서 벌어진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통증과 부진을 한꺼번에 털어낸 샤라포바는 28일 뉴욕 빌리 진 킹 내셔널테니스 센터에서 열리는 US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청신호를 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전화 010-223-1140, 02-1010-601-6222  
(광주본점·신본점, 대인동·서성동·광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 4~5층 정도에 점포  
가 여전히 잘 형성되어  
될 예상입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  
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  
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온라인 통있는 저희 부동  
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 무등공인중개사

전화 083-5211 원 011-609-5211  
(상무지구 입구)

### 건물투자

- 보증금 36억 원세 3,000만원  
(서울외 고성장) 월세 12억 원  
예상(토지와 교통기능)
- 동구 93평 1층 920만원
- 평신죽 93평 1층 920만원
- 월 1,500만원 이상 평가 35억
- 보증금 5억 원세 1,500만원  
예상 19억 원세 40억 원세
- 보증금 3억 원세 2,200만원  
예상 60억 원세 700만원
- 보증금 3억 원세 160만원  
예상 40억 원세 160만원

### 도량투자(상무지구)

- 850평 2층 900만원
- 500평 2층 820만원
- 120평 평당 650만원(상무지구)
- 100평 평당 800만원(시청역지구)
- 130평 평당 850만원(상무지구)

### 도량매매

- 상무지구 대세 34평  
월세 930만원 예상 12억
- 상무지구 대세 35평  
월세 18억 평가 25억

### 상가·사무실(상무지구)

- 상가 90평 보증 5천만원  
월세 650만원 평가 10억
- 사무실 3층 69평 평당 390만원

### 임야(농지)

- 광산구 동신동 212평 평당  
평당 11만원(전지역 사무실)

### 공장, 창고 및 기타

- 광온동 대지 155평(20M도로)  
평당 265만원

### 정우부동산

전화 0375-4708-7 원 011-603-4748  
(봉산동 한일병원부근)

### 건물급매

- 대지 260평 건물 1층 600평 지하1층  
지상8층 예상 920평 보증금 1억
- 2천만원 월세 1000만원 월자 4개월
- 주월동 한일병원부근 대세 4층 1,500평  
예상 800평 지하1층 지상5층 예상 800평  
예상 19억 원세 4억 원세
- 보증금 5억 원세 1,500만원  
예상 30억 원세 2,200만원
- 보증금 3억 원세 700만원  
예상 10억 원세 1,500만원

### 토지급매

- 봉산동 2차선 버스승강장 인접  
대지 160평 평당 550만